



# 한국 양계신문

## EU

## 축산물의 항생 잔류물질 4개국만이 안전

EU(유럽연합)국중 4개국(덴마크, 스웨덴, 필란드, 포루투갈)만이 축산물의 항생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벨기에의 한 소비자 단체(Test Achat)가 15개의 EU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닭고기, 칠면조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조사대상이었는데 각각의 샘플을 채취해 항생물질 잔류를 조사한 결과 아일랜드가 돼지고기에서 17% 이상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어 품목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품목중 평균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스페인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 소비자 단체는 축산물에 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항생제는 인간에게 바이러스로 부터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므로 이를 “시한폭탄”으로 표현하여 항생제 잔류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WP)

## 이스라엘

## 소금 오염문제 심각

이스라엘에서 가금육 처리과정중 소금을 이용한 kashering 공법(일종의 염지 작업)이 칠면조와 닭고기에 과량 사용되면서 환경오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이 끝난 후 배출되는 소금물은 하천으로 흘러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도계장에서 사용되는 소금의 양은 연간 17만톤으로 kashering 작업시 닭고기 1kg당 약 280g의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90~95g을 사용하는데 비해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은 양이다.

소금의 과량사용에 대해 환경관계자들은 가금육 생산자들이 교육 부족과 장비 부족으로 이런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장비와 기술이 보급된다면 최소 2년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WP)

##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에 따른 양계업 변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94년 넬슨 만델라가 자유경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회적으로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유화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양계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화 바람은 그동안 묶여있던 수출입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닭고기의 수입 증가를 불러온 데 반해 양계 생산량과 소비량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 양계산물 생산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큰 성장을 보이지 못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비 증가량은 지역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90년 대비 2000년과 2010년의 인구증가율이 각각 26%와 56%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계란소비 증가율은 37.9%와 94.0%, 닭고기 소비 증가율은 38.9%와 83.9%로 예측되어 양계산업이 큰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표는 남아프리카의 '95년 양계산업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산단계 농장은 450개로 이중 2개농장이 소유한 양계규모는 전체 양계 수수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농장들은 1만수 이하의 영세농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닭고기 산업은 30년 전에 1인당 소비량이 5kg이던 것이 '95년에는 18kg으로 빠른

표. 남아프리카공화국 양계산업 현황('95년)

구 분	계 란	닭 고 기
가 구 수	450명	450명
사 육 수 수	1,400만수	-
생 산 량 / 년	22만5천톤	40만톤
1 인 당 소 비 량	90개/년	18kg/년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WP)

## 태국 CP그룹 미국시장 위협

태국의 가장 큰 닭고기 계열사인 CP그룹이 미국내에서 타 계열사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전부터 알라바마주의 남부지역에 세워진 이 회사는 사료공장, 부화장, 종계장, 육계 농장, 가공공장을 차례로 확보하면서 미국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CP그룹 사장은 “미국의 닭고기 가공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남을 확신한다. 그러나 CP그룹은 닭고기 가공 산업의 선두중의 일원으로 이들과 박자를 맞춰가는데 손색이 없다.”며 자회사의 우수성을 피력하였다.(WP)

## 러시아 닭고기 경쟁력 크게 약화

미농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러시아는 전체 육류소비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닭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95년보다 26%나 증가한 85만3천톤(8억2천6백만달러)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독립국가연합국에서 닭고기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닭사육수수는 '91년부터 현재까지 45%가 감소했으며 닭고기는 무려 55%나 감소하였는데 닭고기 가격은 수입가격 보다 20~40%나 비싸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J)